

불교발전 여력(女力) 있다

불교여성개발원, 조직정비·교육강화·전국 네트워크 구축

불교여성개발원(원장 이인자)이 여성불자 108인 선정, 세계여성불자 대회의 조직적인 홍보, 탄진 빠모 스님의 강연회 개최 등 굵직한 사업들을 성공리에 회향하면서 활동을 뜻을 달리 시작했다.

사무국장장과 연구과장 등 2명에 그쳤던 실무진을 보강하며 내부 조직

정비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을 비롯해, 자체 설문조사 분석을 체계화하면서 여성불자 네트워크에 기반한 실질적인 포교활동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포교원 산하기관으로 '혼인준비교실' 등의 정기사업에 머물렀던 소극적인 활동에서 벗어나 명실공히 재가여성불자들을 이

끄는 우바이 대표그룹으로 거듭나고 있는 것이다.

불교여성개발원은 지난 해 말 전국의 여성불자 6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성불자 의식조사' 분석을 토대로 체계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착수했다. 신행활동에 가장 큰 걸림돌로 조사된 가사·육아 문제, 불교에 입문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30대 여성불자들의 활동부진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향후 개설 프로그램에 반영하겠다는 생각이다.

특히 여성불자들의 수행유구가 다양한 연령대에 걸쳐 가장 높게 나타난 것에 주목해 일반 사찰의 프로그램과 구분되는 전문적인 교육과정 고안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기존 교육 사업의 발전적인 확대 방안 준비도 한창이다. 매년 두 차례씩 마련하는 '혼인준비교실'의 모범적 운영사례가 부각되면서 서울시는 강좌를 세 차례로 확대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최근에는 서울시가 주관하는 '양성평등한 직장만들기' 사업에 선정돼, 오는 9월부터 중앙종무기관 종사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내부 실무진들을 중심으로 꾸리



모국의 사찰에서...
천태종(총무원장 운덕)이 제3차 세계한인입양인대회 참가자 모국을 찾은 각국의 해외입양인 430여 명을 초청, 8월 5일 서울 무명동 관문사에서 한국불교 체험행사를 열었다. 이들은 4시간여 동안 환영행사와 저녁 공양에 이어 작법무와 태권, 민속예술단의 공연을 지켜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관련기사 11·20면 사진=고영배 기자

고 있는 '승만경 읽기 모임'을 일반인에게 확대할 계획도 검토 중이다.

또한 각계각층 여성불자 108인을 선정한 이후 지역의 여성불자 조직망을 구축해 자체적 역량결집과 소통망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실제로 이들 108인은 지난 세계여성불자대회 당시 인적 네트워크에 기반, 지역 내 사찰 및 단체를 대상으로 한 홍보에 일익을 담당했다.

부산지역 여성불자 108인의 경우 불교여성개발원을 매개로 하여 연초에 한 차례 모임을 갖고 여성불자 연대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격년에 한 번씩 여성불자 108인 선정 사업을 지속하는 문제도 검토 중이다.

불교여성개발원 이화 사무국장장은 "전국에 포진된 여성불자 108인의 인적 네트워크와 8월 15일 개최되는 홈페이지 등을 매개로 불교여성개발원의 사업을 확대·조직화할 방침"이라며 "여성불자들의 수행유구와 사회적 역할 실현 욕구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간신재 기자 thalishw@buddhapia.com

'암자 1번지' 답게...

재정공개·공의운영·선종진작 등 '혁신 방안' 내놔

해인사 원당암

해인사 산내 암자 중 가장 먼저 건립되었다고 해서 '암자 1번지'로 불리는 원당암. 조계종 전 종정 해암 스님이 주석하며 선종을 높였던 곳이기도 한 원당암이 재정공개, 공의에 의한 사찰 운영, 선 수행 풍토 진작 등을 통해 '최고의 도량'이 되겠다고 나섰다. 한마디로 사찰이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고,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모델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원당암 내에 연구실을 두어 합리적인 사찰운영과 시대에 맞는 포교 및 수행 방법을 마련할 방침이어서 산사의 암자가 불교계에 일으킬 신선한 바람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이 가운데 핵심은 투명한 사찰 운영. 지난 6월부터 원당암 원주 소임을 맡은 진각 스님은 총무원 포교국장을 지냈던 경험을 바탕으로 원당암 운영에 투명한 결재 시스템을 도입하여 수입과 지출 일일보고서를 작성하는 한편 매일 회보를 통한 사찰 수입과 지

출의 회계 공개를 약속했다.

진각 스님은 "결재시스템이 처음에는 좀 복잡하고 번거로워 보이지만 오히려 공감대를 형성한 결재 체제가 훨씬 합리적이고 능률적이며, 대중화함과 사찰 운영에 있어 올바른 기틀이 된다"고 말했다.

조계종 전 종정 해암 스님의 사상과 업적을 기리는 선양사업도 '해암 스님 선양사업 추진 위원회'를 조직 추진한다.

문도는 물론 재가 유발상좌 등 사부대중이 두루 참석하여 공의에 의해 매사를 진행할 것을 밝힘에 따라 문집편찬 사업, 사리탑 건립과 사진첩, 비디오, 영상물 제작 등이 속속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원당암은 시대에 맞게 대중에게 다가서는 포교 및 수행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로의 회향을 통한 상생의 삶을 강조하면서 그 방안도 연구하고 있다.

우선 눈길을 끄는 것은 문서 포교지로 활약하게 될 회보 <달마선원>. 8월 창간호로 발행된 <달마선원>은 8면으로 해암 스님

법어를 비롯해서 원당암의 소식을 담고 있으며, 앞으로 재미있는 내용을 기획, 증편 발행하여 청소년이나 일반인들에게 다가갈 예정이다.

12월부터는 수련원장의 소임을 두어 체계적인 수련프로그램을 기획하여 100명 수용가능한 수련원에 템플스테이를 상설화할 계획도 있다.

선 수행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를 감안해 서울, 대구 대전, 안동, 마산, 창원, 거창 등에 재가수행자들을 위한 선원도 잇따라 마련할 예정이다.

이밖에 원당암은 어린이집, 유아방의 운영과 사회 어려운 사람에게 희망할 수 있는 사업추진도 고려 중이다. 또한 스님들이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거창이나 함천읍내에 원소스님을 모실 복지공간 건립도 구상하고 있다.

진각 스님은 "사찰은 스님과 불자, 국민 모두가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하며, 원당암의 모든 계획은 이런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해인사 원당암=배지선 기자

석·목조 문화재 종합관리책 절실

정부합동점검반, 관리부실 29건 파악

석조 및 목조 문화재에 대한 체계적인 문화재종합관리계획의 수립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7월12일부터 23일까지 국무총리실 '정부합동점검반'이 전국 32개 시·군지역의 주요 석·목조 문화재를 대상으로 관리 실태를 표본 점검한 결과 18개 시·군 29건의 문화재에 대한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8월 3일 문화재법 특성 및 상태에 따른 유지보수, 매뉴얼 작성 등 문화재종합관리계획을 연말까지 수립토록 문화재청 및 시·군에 촉구했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양주 회암사지

쌍사자 석등(보물 제389호)은 부실 보수공사로 보수부분 일부가 탈락된 채로 방치돼 있으며, 담양 개천사지 석등(보물 제111호)은 지주석 보수공사 부실로 지주석이 파손돼 있다.

또 부여 무량사 5층 석탑(보물 제185호), 구례 논곡리 3층 석탑(보물 제509호) 등은 석탑이 기울어져 훼손이 우려되는 상태이고, 제천 장락동 7층 모전 석탑(보물 제459호), 창녕 술정리 동3층 석탑(국보 제34호) 등은 수몰 속에 방치돼 보호조치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창녕 술정리 동3층 석탑은 해일 스님(창녕 관음정사 주지)과 향

토사학자들의 보존노력 결과 탑 주변 정비 공사 여건이 마련됐으나, 군청이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없이 공원화 계획 및 도로 건설을 강행해 문화재 훼손이 우려가 큰 곳이다.

합동점검반은 부실관리의 원인을 △문화재별 관리·보수 연혁 정리 미흡 △문화재 관리 매뉴얼 부재 △문화재관리 전담인력 부족 및 전문성 부족 △현상 유지 목적의 보수 등으로 진단하고, 이에대한 대책으로 △문화재종합관리계획에 입각한 체계적 관리 유도 △지속적인 실태조사 실시 등을 제시했다. 박익순 기자

여름휴가관계로 금주 24면 발행

수요일은 1080 누르고 福 짓는날!
전국 어디서나 일반전화·휴대폰으로 1080 누르면 '관음손'이 됩니다
나눔의 손잡기 기금모금
ARS: 060-700-1080

'할'

오전에 먹던 김치
오후에 다르듯 우리몸세포도 변해...

100년도 살기힘든 시한폭탄 결에서 무감각은 불제자가 못돼!

정관 스님 법문에서(법문은 12, 13면에서 만나세요)

그림·조태호

수행자의 멋진 생활 엿보기

법정·지유·정원·서암·진공 스님 등 85명 스님들의 감동적인 수행일화

스님이야기

정운 스님 | 320쪽 | 9,000원
지록 스님 외 | 144쪽 | 12,000원

스님이야기

최근 발간된 '스님이야기'는 지록·효림·현진 스님 등이 수행길에서 만난 스님 85명의 일화를 소개했다. 엄숙함의 베일을 걷고 보아도 수행자로서 고결한 자세와 인간미가 도드라진다.

— 조선일보

합천 해인사 주지이면서도 결 주변을 돌며 관광객이 버린 담배꽂이를 휴지를 주웠던 지현 스님, 코피 나도록 일어맞아도 상대방에게 주목질을 하지 않았던 무술 고수 대오 스님 등 다양한 수행승 이야기가 전술하게 펼쳐진다.

— 동아일보

지록·허주·수완·정운·원옥 스님 등 15명의 스님이 필자로 나서 '무소유'의 저자 범경 스님, 전형적인 학자풍의 중앙승가대 총장 종범 스님, 20여 년 가까이 강좌불의, 오후불식을 해오고 있는 지유 스님 등 결에서 지켜본 스님들의 수행 모습을 솔직담백하게 독자들에게 전하고 있다.

— 연합뉴스

어서이문
www.yosiamun.com 종로구 경지동 110-33 Tel: 02)737-0695 Fax: 02)737-0696